

## 소련·중공식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과 그 평가 - 한국의 소련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수용을 중심으로 -

신연재  
울산대 정외과

### I. 서 론

1960년대 말엽 이후로 다양한 시각에서 국가이론을 재조명해 온 구미학계의 연구 동향이 가져다 준 자극, 그리고 국내적인 면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에 수반된 제반 병폐의 노정과 정치 체제의 권위주의화 및 국가권력의 확대에 대한 반성은, 1980년대 이래 한국의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도 국가 문제를 가장 보편적인 분석 대상으로 대두시켰다.<sup>1)</sup>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 걸친 정치환경의 개선은 이전까지 금기로 여겨졌던 소련·중공식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는데, 특히 국가 문제에 관한 기왕의 관심을 반영하여 사회주의적 국가이론의 수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state monopoly capitalism)이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과 이를바 운동권 인사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해석되어, 한국적 적실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함으로써<sup>2)</sup> 그들 내부에서는 물론 관련 논자들이 그 향배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다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그 자체는 국가와 독점자본의 관계를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어서, 소련 및 동구권에서 체제 개혁의 물결이 거세어지기 이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사회주의적 세계관의 보편적 저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글은 이미 일제 시대의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구미의 여타 이념과 함께 논의한 것이 수용 과정의 기원을 이룬다는 전제 아래, 그 시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성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과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도 국민 정서로까지 흡수되어야 엄밀한 의미의 정치이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외래이념의 수용 초기 단계에서는 지식인의 촉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수용된 다의적 국

- 
- 1) Anthony Giddens & David Held (eds.), *Classes, Power, and Conflict : Classical and Contemporary Debates* (London : Macmillan, 1982) ; David Held et al. (eds.), *States & Societies* (New York : New York Univ. Press, 1983) ;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법문사, 1987)
  -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논쟁의 경과 및 쟁점에 관해서는 양원태, "한국자본주의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쟁점," 「현실과 과학」 9 (1991), pp. 239-270 참조

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현대 한국 정치와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진보적 이론의 도구로 작용한 결과, 기존의 자유주의적 논자와는 물론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이론적 갈등을 빚어낸 사실에 주목하여, 특히 소련 및 동구권에서 산출된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의 수용 및 변용 형태와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국제정치에서의 단위의 성격에 비추어 이념이나 이론의 전파가 국가 또는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1차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지식인 계층 그것도 지식인 각자의 역할이어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변용 방식과 맥락에 관한 고찰은 정치환경의 요구와 지성 활동간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시계열상의 단계에 따라 정치환경의 변화와 지식인의 대응 형태의 상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그리하여 그것의 한국적 적실성을 놓고 이론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이 글은 분석시각의 단서를 두고 있다.

## 2. 소련·중공식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과정

한국에 사회주의 이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20년대를 전후한 시기였으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레닌에 의하여 소련의 정치환경에 맞게 변형된 소련식 사회주의 즉 Marxism-Leninism이었고, 이 점이 사회주의의 한국적 수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0월혁명 이후 레닌은 대내적으로 소수민족 문제, 대외적으로는 서구의 간섭과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에 직면하여 민족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윤리를 시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따라서 이 단계의 Leninism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미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이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일부 독립운동 세력들은 조국해방투쟁의 기저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이 독립이라는 실천적 목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이 일제 시대의 한 특색이었다는 기왕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sup>3)</sup> 한국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의 양립을 요청받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주로 독립운동을 이론적인 면에서 뒷받침하는 논리로 수용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사회주의 이념의 체계적 이해와 재정립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운동의 목표에 매몰됨으로써 과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그리하여 해방 이후까지도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가 저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역효과를 빚어낸다.

사회주의 이념이 계급투쟁과 무산자혁명보다는 민족해방투쟁을 합리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수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그것이 일제의 식민지로 몰락한 한국의 정치환경의 여파를 거친 결과,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려니와 동시에 Marxism-Leninism의 강조점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4)</sup> 더우기 사회주의가 이미 국권

3)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 Some Basic Characteristics," 「동아연구」 7 (1986. 3), pp. 19-20

4) 毛澤東 사상은, Marxism-Leninism을 중국의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적용한 결과 그것의 핵심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Meisner의 지적은 일제하 한국의 사회주의 수용 과정 분석에도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Maurice Meisner, *Marxism, Maoism & Utopianism* (Madison : Univ. of Wisconsin Press, 1982) ;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51)

을 상실한 1910년대 후반에 수용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배이념의 공백기에 투쟁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수용이 촉진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사상과의 상호간섭 때문에 내용의 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내적 모순과 외적 위기의 연쇄로 말미암아 유교적 정치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전통질서를 떠받쳐 온 전통사상도 동요되는 가운데 서구의 제반 사조가 유입되지만, 대부분의 권력과 지성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던 한, 전통사상의 활력이 완전히 박탈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사상의 조류가 정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배적 정치이념이 부재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수용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은 전통사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적응되고 변용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 기반은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한국인들 중의 일부가 10월혁명의 와중에서 볼쉐비키를 지지하고 독립운동 세력 중 상당수가 러시아령 극동 지역으로 도피한 것에서 마련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러시아의 볼쉐비키였던 크렙코프(Krepkov)의 지원과 이동휘의 주도 아래 1918년 6월 26일 결성된 〈韓人社會黨〉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정치조직이었다.<sup>5)</sup> 그런데 한인사회 당의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음은 물론 어떠한 항일 세력과도 협력 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sup>6)</sup> 식민지 상황下에서 민족주의와의 공존이 사회주의 수용의 전제였음을, 나아가서는 반제국주의·독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치세력의 결집을 추구한 통일전선식 민족해방투쟁론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한다면 한국에 최초로 수용되어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가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소련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李石曾 등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서구 유학 시절에 사회주의에 경도된 적도 있고 보면,<sup>7)</sup> 이들을 통해 서구·일본·소련의 무정부주의를 수용한 한국의 저항 세력-예를 들어 신채호, 이희영 등-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운동 방략으로서의 도구적 가치를 비교한 후에야 무정부주의에 의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주의 수용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일본유학생들이었던 것이, 일본은 이미 1876년부터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명치 말기부터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중했어도, 1차대전의 종전을 전후한 1918-1920년간에 일본 사회주의의 발흥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후 사회주의가 운동과 학문의 양면에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출신 유학생들중 일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흡수하고 성장시키는 터전으로 일본을 이용했었다. 게다가 10월혁명의 성공 그리고 사회주의가 담보한 공시적·통시적 보편성과 반제국주의적 성향은,<sup>8)</sup> 국권의 회복 가능성이 점차 요원해져 점진주의적 독립방략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던 상황에서 이들을 사회주의에 동화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5)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연구」(화다, 1985), p.22. 1920년 2월 일본유학생들이 조직한 조선노동공제회, 프로레타리아연합회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조직이라는 전병자의 주장은 '국내 최초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전병자, "마르크시즘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정신문화연구원, 1984), p.34

6) 서대숙, 「앞의 책」, pp.22-23

7) Robert A. Scalapino & George T. Yu,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1), p.56

8) 김창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배경," 「북한정치론」, pp.13-71

이들은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와 〈프로레타리아연합회〉, 그리고 1923년 〈북성회〉, 1924년 〈북풍회〉와 〈화요회〉를 잇달아 조직함으로써<sup>9)</sup> 초기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과 운동의 전개를 선도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들 또한 사회주의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국 해방이라는 목표에 전도되었을 뿐 이념의 체계화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주의 관념에서도 민족주의 등의 여타 정치이념이 내면화되었던 특징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축적하지도 한국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시키지도 못한 것이, 대체로 이들에게는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투쟁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이해하게 한 주요 변수였다.

반면 해방시켜야 할 조국이 없었던 한국계 러시아인들의 〈全露韓人共產黨〉 즉 〈이르크츠파〉는 이동휘파가 공산주의를 독립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민족주의와의 조화를 거부한다. 이에 대응하여 이동휘는 한인사회당을 〈高麗共產黨〉으로 개편한 후 발표한 강령에서, 한국 공산주의자의 의무는 일본 및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조국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조국에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로써 통일전선 전술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여겨지거나와 운동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사회주의 분파간의 분열상이 노정된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 사회주의 세력간의 대립 그리고 일본의 시베리아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 것을 계기로 통일전선 전술의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한국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소련은 사회주의 제세력간의 통합은 물론 점차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차별적 관념을 요구함으로써, 조국 해방보다는 계급투쟁을 중시하도록 한국 사회주의의 지향을 유도해 나아간다.<sup>10)</sup>

1925년 이후 소련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제 타도와 독립 이외에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조화 그리고 폭력혁명을 수단으로 한 공산사회의 건설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소련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경로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거나와 통일전선 전술의 이완이 가속화되었음도 간과할 수 있다. 1931년 〈신간회〉의 해산은 한국 사회주의의 이러한 변화의 소산이었으나,<sup>11)</sup> 이후 소련식 사회주의에 근거한 채 민족주의적 개량주의와 결별하여 독자적 이념 정향을 제시했어도, 당시의 정치환경 속에서 무산자혁명이 적실한 것인가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생략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이후 한결 가중된 일제의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공간을 봉쇄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경로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량주의 세력과 일제의 타협이 반작용을 초래하여 기왕에 수용된 사회주의 이념이 투쟁의 방향으로 내면화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소련식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한국적 재구성을 저해하게 된다.

해방 직후의 시기는 최초로 공개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전파한 시기여서, 미군정에 의하여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된 뒤에도 사회주의 이념은 지식인 사회의 전유

9) 신일철, “한국 독립운동의 사상사적 성격,” 『아세아연구』, XXI (1978), p.127

10) 이정식, 『한국 민족주의운동사』(한밭, 1984), pp.210-211.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1924년 코민테른의 비판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의 시작에서 계급, 의회주의, 무산계급 청당, 노동계급 운동 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Robert A. Scalapino,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 1920-1966*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p.22

11)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2), Vol.1, p.111

을 상실한 1910년대 후반에 수용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지배이념의 공백기에 투쟁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수용이 촉진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사상과의 상호간섭 때문에 내용의 수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부터 내적 모순과 외적 위기의 연쇄로 말미암아 유교적 정치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전통질서를 떠받쳐 온 전통사상도 동요되는 가운데 서구의 제반 사조가 유입되지만, 대부분의 권력과 지성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던 한, 전통사상의 활력이 완전히 박탈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사상의 조류가 정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배적 정치이념이 부재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수용됨으로써, 사회주의 이념은 전통사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적용되고 변용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 기반은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이주한 한국인들 중의 일부가 10월혁명의 와중에서 볼셰비키를 지지하고 독립운동 세력중 상당수가 러시아령 극동 지역으로 도피한 것에서 마련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러시아의 볼셰비키였던 크렙코프(Krepkov)의 지원과 이동휘의 주도 아래 1918년 6월 26일 결성된 〈韓人社會黨〉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정치조직이었다.<sup>5)</sup> 그런데 한인사회 당의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음은 물론 어떠한 항일 세력과도 협력 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sup>6)</sup> 식민지 상황하에서 민족주의와의 공존이 사회주의 수용의 전제였음을, 나아가서는 반제국주의·독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치세력의 결집을 추구한 통일전선식 민족해방투쟁론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유의한다면 한국에 최초로 수용되어 영향을 미친 사회주의가 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소련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李石曾 등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서구 유학 시절에 사회주의에 경도된 적도 있고 보면,<sup>7)</sup> 이들을 통해 서구·일본·소련의 무정부주의를 수용한 한국의 저항 세력-예를 들어 신채호, 이회영 등-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의 독립운동 방략으로서의 도구적 가치를 비교한 후에야 무정부주의에 의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사회주의 수용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일본유학생들이었던 것이, 일본은 이미 1876년부터 사회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명치 말기부터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중했어도, 1차대전의 종전을 전후한 1918-1920년간에 일본 사회주의의 발흥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후 사회주의가 운동과 학문의 양면에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출신 유학생들중 일부는 사회주의 이념을 흡수하고 성장시키는 터전으로 일본을 이용했었다. 게다가 10월혁명의 성공 그리고 사회주의가 담보한 공시적·통시적 보편성과 반제국주의적 성향은,<sup>8)</sup> 국권의 회복 가능성이 점차 요원해져 점진주의적 독립방략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던 상황에서 이들을 사회주의에 동화시켜 나아가고 있었다.

5) 서대숙,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연구」(화다, 1985), p.22. 1920년 2월 일본유학생들이 조직한 조선노동공제회, 프로레타리아연합회가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조직이라는 전병자의 주장은 '국내 최초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전병자, "마르크시즘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정신문화연구원, 1984), p.34

6) 서대숙, 「앞의 책」, pp.22-23

7) Robert A. Scalapino & George T. Yu, *The Chinese Anarchist Movement*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1), p.56

8) 김창준,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배경," 「북한정치론」, pp.13-71

이들은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와 <프로레타리아연합회>, 그리고 1923년 <북성회>, 1924년 <북풍회>와 <화요회>를 잇달아 조직함으로써<sup>9)</sup> 초기의 사회주의 이념 수용과 운동의 전개를 선도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들 또한 사회주의의 수용과 관련하여 조국 해방이라는 목표에 전도되었을 뿐 이념의 체계화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주의 관념에서도 민족주의 등의 여타 정치이념이 내면화되었던 특징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이념 자체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축적하지도 한국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시키지도 못한 것이, 대체로 이들에게는 식민지배를 부정하는 투쟁이념으로 사회주의를 이해하게 한 주요 변수였다.

반면 해방시켜야 할 조국이 없었던 한국계 러시아인들의 <全露韓人共產黨> 즉 <이르크초파>는 이동휘파가 공산주의를 독립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민족주의와의 조화를 거부한다. 이에 대응하여 이동휘는 한인사회당을 <高麗共產黨>으로 개편한 후 발표한 강령에서, 한국 공산주의자의 의무는 일본 및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조국을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조국에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로써 통일전선 전술에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여겨지거나와 운동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한 사회주의 분파간의 분열상이 노정된다. 여기에 덧붙여 국내 사회주의 세력간의 대립 그리고 일본의 시베리아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 것을 계기로 통일전선 전술의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소련은 코민테른을 통해 한국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소련은 사회주의의 제세력간의 통합은 물론 점차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간의 차별적 관념을 요구함으로써, 조국 해방보다는 계급투쟁을 중시하도록 한국 사회주의의 지향을 유도해 나아간다.<sup>10)</sup>

1925년 이후 소련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제 타도와 독립 이외에 국제공산주의운동파의 조화 그리고 폭력혁명을 수단으로 한 공산사회의 건설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소련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경로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거나와 통일전선 전술의 이완이 가속화되었음도 간파할 수 있다. 1931년 <신간회>의 해산은 한국 사회주의의 이러한 변화의 소산이었으나,<sup>11)</sup> 이후 소련식 사회주의에 근거한 채 민족주의적 개량주의와 결별하여 독자적 이념 정향을 제시했어도, 당시의 정치환경 속에서 무산자혁명이 적실한 것인가에 관한 비판적 논의를 생략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이후 한결 가중된 일제의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은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공간을 봉쇄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수용 경로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량주의 세력과 일제의 타협이 반작용을 초래하여 기왕에 수용된 사회주의 이념이 투쟁의 방향으로 내면화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소련식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한국적 재구성을 저해하게 된다.

해방 직후의 시기는 최초로 공개적인 차원에서 활발히 사회주의를 수용하고 전파한 시기여서, 미군정에 의하여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된 뒤에도 사회주의 이념은 지식인 사회의 전유

9) 신일철, “한국 독립운동의 사상사적 성격,” 「아세아연구」, XXI (1978), p.127

10) 이정식, 「한국 민족주의운동사」(한발, 1984), pp.210-211.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1924년 코민테른의 비판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의 시작에서 계급, 의회주의, 무산계급 정당, 노동계급 운동 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Robert A. Scalapino, *The Japanese Communist Movement, 1920-1966*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67), p.22

11) Robert A. Scalapino &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72), Vol.1, p.111

물로 국한되지 않고 상당 부분의 대중들에게도 정서적인 차원에서 호소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남북 분단과 더불어 스스로의 여건에 비추어 스스로 사상계를 정리할 겨를도 없이 한국이 냉전체제에 급속히 편입됨으로써,<sup>12)</sup>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은 물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갈등이 심화된다. 사회주의자들의 이념적 갈등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상 및 그 건설 방법과 관련하여 이들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다양한 부분을 흡수한 결과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수용한 계기와 과정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한 결과이기도 했다.<sup>13)</sup>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여운형>은 자유·평등에 대한 신념과 반제국주의적 정념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했으나, 해방 이후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는 제이데올로기의 융합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는 계급정당 아닌 대중정당을 추구함으로써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전면적으로 배척한 <조선공산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되어, 사회주의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로 규정되고 있다.<sup>14)</sup>

극좌파라 할 만한 <박현영>은 이르크츠과 공산당파의 접촉을 계기로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의 사회주의 관념은 철저히 소련적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위에 정립되어, 계급투쟁이 독립투쟁보다 우선하며 사회주의 사회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저히 부정한 바탕 위에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에 발표된 소위 <8월 테제>-'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는 그의 정치이념을 대변한 것으로서, 당시의 한국사회는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 단계이며 이를 거쳐 사회주의혁명 단계로 이행해야 한다는 2단계혁명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2단계혁명론은 코민테른이 아시아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한 도식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것이어서,<sup>15)</sup> 반제·반봉건-식민지 및 봉건 잔재의 청산-을 주장하는 대신, 당시의 단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 및 산업 시설의 국유화를 주장한 이론적 파오에도 불구하고,<sup>16)</sup> 그가 소련식 마르크스주의의 본령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다. <김두봉>을 필두로 한 연안파는 처음부터 계급혁명·공산사회의 건설보다는 항일투쟁을 더 중시했던 데다가 해방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표방한 터여서,<sup>17)</sup>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민족반역자의 사유재산만을 몰수해야 한다는 강령의 제정은 그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물론 새로운 소비에트 진영과 그 민주적 개혁, 양진영의 존재와 투쟁이 한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에서 이들이 소련적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위에서 있음을 간파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갑산파>를 지배한 김일성의 경우 사회주의자로서의 경력이 계렬라 활동으로 접철되어 있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깊이 할 수는 없었으리라 여겨지며, 1941년 이후로는 관동군의 압박에 쫓겨 하바로포스크로 도주함으로써 소련의 영향 아래 놓인다.<sup>18)</sup> 1946년 8월의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 연설에서 그가 조선노동당의 창당을 독립운동사의 흐름 속에 위치지우면서도 사회주의적 관련을 비치지 않은 것은, 민족주의와의 친화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안파와는 달

12) 노재봉,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녹두, 1985), p. 338

13) 김학준, “해방 3년의 시기에 있어서의 남북한 좌파 지도자들의 공산주의관,” 「동아연구」 7 (1986. 3), p. 65

14) 김광식, “제3세계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운형 : 독립운동과 전국운동을 중심으로,” 「제3세계연구」 2 (1985. 6), pp. 309-310

15) Scalapino & Lee, *op.cit.*, p. 24

16) 김남식,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p. 24

17) Scalapino & Lee, *op.cit.*, p. 354

18) 서대숙, 「김일성」(청계연구소, 1989), pp. 44-50

리 철저한 하부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려 했던 것에서 그의 사회주의관이 하부구조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상부구조는 그것과 민족주의적 요소를 주요 부분으로 한 채 구성된 것임을 그리하여 소련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분파들간의 이러한 이념적 분열과 갈등이 이념의 경쟁 또는 절충이 아닌 힘의 우열에 의해 해소됨으로써, 한국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다양한 갈래를 포괄적으로 흡수하여 재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어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분단과 더불어 남북한이 세계적 냉전체제에 합입되어 이념투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상황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은 남한으로 하여금 반공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사회주의는 반국가 이데올로기로 규정되기에 이른다.<sup>19)</sup>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냉전 구조하에서 국제적인 강력정치의 필요에 의하여 엄격한 국제적 전파통로로 유입된 것이어서, 한국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에 불가결했던 특정의 정치적 후원국가-미국-의 지배적 정치이념에 따라 그 정치권위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집권 세력에게는<sup>20)</sup> 통치명분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고수와 그 반대명분으로서의 반공주의의 강화는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비판과 배척의 대상으로서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성과 대중의 차원에서도 해방 이후 특히 한국전쟁의 경험과 입장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시각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경사되어 사실상 사회주의의 수용 문호가 폐쇄되는 상황이 1950년대 이후 지속된다.<sup>21)</sup> 반공의 대상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이 적극적인 검토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우월을 전제로 한 목적론적 시각에서 비판된 것은, 그리하여 한국의 지성계가 한국에 관한 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념을 비판해야 하는 역리에 빠지게 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였다. 그리하여 1950-1960년대의 진보적 지성들조차도 대부분 실패와 몰락의 불가피성 그리고 모순의 다원성 등을 전제한 채 사회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때를 이루었고, 당시 그들의 대변자였다고 해도 좋을 「사상계」의 사회주의 관계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 결과 사회주의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대상으로 존재할 뿐 정치명분으로서의 가치는 박탈당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외연에서 충위를 막론하고 사회주의권을 소련·중국·북한으로 단순화하는 시각의 편협성과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이식하려는 취약성을 초래한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해빙되면서 국제정치 영역에서 획일적 반공주의가 퇴조함에 따라 통치권위의 정당성을 소극적 반공주의에만 의존하기가 어렵게 된<sup>22)</sup> 정치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주관적·정감적 연구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관의 객관화·일반화를 시도한 변화가 지성계에서 일어난다. 외국이론에 의존한 공산권 지역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이러한 변화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이 경우 특정 외국의 지역연구는 직간접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이해에 따라 연구의 성격과 방향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23)</sup> 특정국가의 시각을 무비판·무수정의 상태에서 수용할 경우 오히려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한계를 미해결의

19) 최정호, "무사상의 사회, 그 내력과 구조," 「사상」 (1989 여름), pp. 43-44

20) 노재봉, 앞의 논문, 340-341

21) 이홍구, "공산권 연구의 시각과 문제점,"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공산권 연구 현황」 (법문사, 1981), p. 15

22) 노재봉, 앞의 논문, p. 341

23) 이홍구, 앞의 논문, pp. 15-16

과제로 남겨 놓았다. 그런데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반공주의의 추세가 일반화로부터 개별화로 이행되어 가자, 획일적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통치권위의 정당화가 국제정치 차원에서 국내정치 차원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민복지의 증진이 통치권위의 정당화 명분으로 전면에 부상했거나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객관화된 사회주의권 연구시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의거하여 기존의 연구시각들에 비판적인 논자들이, 사회주의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정립하기 위하여 특정 외국의 시각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1980년대는 1940년대 후반 이래 사회주의권의 사회주의 이념이 다시 공개적으로 수용되는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제기한 반공주의의 문제-누구와 무엇을 위한 반공인가-와(예를 들면 이병천,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 과정,”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한길사, 1987) 9) 관련하여 국가의 계급적 성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것이 기왕의 국가이론의 활성화 경향과 교직되기도 하여, 사회주의적 국가이론에 대해서도 수용의 문호가 개방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한국사회의 성격을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규정하려는 논자들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서, 1980년대 후반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이론 논쟁에서 사회주의이론을 대표하는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국가의 속성·역할·한계 문제가 사회과학 제 분야의 보편적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사회주의권 나름의 독특한 시각을 대변해 온 것이어서, 3장에서는 소련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준거로 4장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지성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변용되는 형태를 다룰 것이다.

### 3. 소련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이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되고 있는 데 반하여, 레닌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최초로 간파했다는 점에는 그리하여 그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데는 논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sup>24)</sup> 1917년 4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SDLP) 전당대회에서 레닌은 자본의 거대화와 집중화가 독점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적 생산과 분배의 규제가 상황의 압력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었다.<sup>25)</sup> 그의 인식지평에서는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이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포착된 것인데, [국가와 혁명]((State and Revolution))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보다 상세한 논의를 검토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이다. [국가와 혁명]에서 그는, “제국주의는 국가기구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관료·군사 장치의 전례없는 성장으로 무산자에 대한 억압 조치를 강화하며, 이로써 금융자본·대자본의 독점·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과

24) Laurence Harris, “State Monopoly Capitalism,” Tom Bottomore (ed.),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 Basil Blackwell, 1983), p.469 ; Bob Jessop, *The Capitalist State* (New York : New York Univ. Press, 1982), pp.33-34 ; N. S. Andreyev et al., *Political Economy : Capitalism* (Moscow : Progress, 1977), p.398

25) V. I. Lenin, The Seventh All Russian Conference of the R.S.D.L.P.,” *Collected Works*, Vol.24, p.305

정을 촉진 내지는 강화하는 것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sup>26)</sup> 소련의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관한 공식 해석은 그의 이러한 규정에 토대를 둔 것이되, 자본주의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그의 이론 중 특정 측면을 부각시킨 것이어서, 변화의 과정을 밟지 않을 수 없었고 논자마다 강조 점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론의 강조점과 적용 방식이 시대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1930년대 초에는 지배 계급의 고립과 자본주의의 임박한 몰락을 강조하는데, 1930년대 말에는 모든 진보 세력과의 연합을 합리화하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서구 공산당 강령의 개혁주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데 이용되었다.<sup>27)</sup>

이 과정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이 이론으로서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춘 것은 1950년대 초기의 소련과 동구에서였는데,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국가의 상대적 안정성, 서구 국가들의 고도 성장, 대중의 생활 수준 향상, 낮은 수준의 실업률 등의 상태를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레닌 이래 194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적용될 뿐이었던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이<sup>28)</sup> 1950년대에 이르러 소련의 공식 국가 이론으로 등장하면서 여타 이론의 개발과 그 타당성을 제약해 들어 감으로써,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 이론 연구 동향과 대조를 이룬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 약점이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것이라는 비판에 유의하여, 1960년대 말엽부터 국가 이론 내지는 정치 이론의 재구성과 체계화에 주력해 왔던 테다가, 특히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이론에 대한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도구적 성격을 부정하는 등 다양한 이론을 제시해 왔다.<sup>29)</sup> 소련의 이론가들도 이론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소련의 상황에서 정치로부터의 학문의 독립이 쉽지 않아서 과도하게 새로운 가정이나 비판을 제시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이후로 소련에서도 국가의 자율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자율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논자들도 있기는 했으나,<sup>30)</sup> 결국 국가 역할의 증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세계 경제의 상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이 여전히 주도적 역할

26)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Selected Works*, Vol. 1 (Moscow :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0), pp. 355-356.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 관념은 자본주의 국가와 지배 계급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 Kautsky 그리고 간섭주의적·군사주의적·억압적인 국가와 금융자본의 결탁을 부각시킨 Hilferding과 Bukharin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Neil Harding, *Lenin's Political Thought* (London : Macmillan, 1981) 참조

27) R. B. Day, *The Crisis and the Crash : Soviet Studies of the West, 1917-1939* (London : New Left Books, 1981)

28) Jessop, *op. cit.*, pp. 38-39

29) Paul A. Baran & Paul Sweezy, *Monopoly Capitalism*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66) ; Ben Fine & Laurence Harris, *Rereading Capital* (London : Macmillan, 1979) ; Michael Kalecki,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71) ; Ralph Miliband, “Marx and the State,” in Tom Bottomore (ed.), *Karl Marx* (Oxford : Basil Blackwell, 1973) ; Nicos Poulantza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New Left Books, 1973) ; Josef Steindl, *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 (Oxford : Basil Blackwell, 1952).

30) Neil Malcolm, *Soviet Political Scientists and American Politics* (London : Macmillan, 1984), pp. 25-28. Malcolm에 의하면 소련에서 제기된 국가 자율성의 형태는 첫째 사회 전체에 대한 relative autonomy 둘째 지배 계급에 대한 normal operational autonomy 셋째 과도기적 전제정체화에서의 exceptional autonomy라고 한다.

을 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독점자본에 대한 예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레닌의 이념으로 후퇴 한다.<sup>31)</sup>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상당한 결함을 내포한 것임에도 동구사회주의권내에서 국가이론으로서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소련공산당도, 독점자본과 국가의 힘(strength)을 결합하여 독점자본을 증강하고 노동계급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을 억압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체제를 구원하고 침략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규정하는 선에서 그 공식 입장을 정리해 왔다.<sup>32)</sup> 레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계승한 소련의 공식 입장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별개의 단계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sup>33)</sup>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려니 와, 전자는 후자가 고도화된 단계, 즉 자본의 집중화와 거대화·독점자본에 의한 지배의 강화·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증대로 특징지어지는 제국주의 단계의 특수한 현상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그러면서도 소련측 이론가들은, 과거의 전반적 위기(general crisis) 상황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전시 또는 경제위기시에 대두되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독점자본가 계급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의 제반 수단을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한다고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독점자본주의 및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하여 차별적 관념을 분명히 하는데,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 요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로 의견이 집약된다.<sup>34)</sup>

첫째 국가 차원에서의 자본집중을 요구하는 과학기술혁명의 가속화로서, 조세를 수단으로 국민소득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 국가는, 예산으로 국영기업을 설립하여 자본가들이 위험 때문에 투자를 회피하는 분야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본과 결탁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제 차원에서 자본의 집중화가 발생하여 이 차원에서 국가와 독점자본이 결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서, 생산의 사회화가 고도화되고 자본주의의 과성숙이 지속되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확산되어, 혁명으로 그것을 긴급히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필요를 스스로 제기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생산의 사회화로 직접 연결되므로, 자본가 계급은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새로운 사회질서-완전 자유경쟁이 완전 사회화로 변화된-에 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를 통제하는 이유라고 주장한 레닌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생산의 고도화를 혁명의 필요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자연스럽게 연동시키는 논리는 소련식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골간이 레닌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해 준다. 셋째 계급투쟁의 격화도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육성하는 요인중 하나

31) N. S. Andreyev et al., *op.cit.*, p.417

32) M. I. Volkov (ed.), *A Dictionary of Political Economy* (Moscow : Progress, 1985), p.340

33) Maurice Dobb, "Capitalism," in C.D.Kernig et al. (eds.),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72), Vol.1. 양자를 상이한 단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Baran, Sweezy, Poulantzas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Fine과 Harris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차이를 근거로 양자를 구분한다. Fine & Harris, *op.cit.*, pp. 112-145

34) 이 점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는 Andreyev et al., *op.cit.*, pp.399-401 ; Vladimir A. Tumanov, *Contemporary Bourgeois Legal Thought* (Moscow : Progress, 1974), pp. 64-76 참조

로 지목되는데, 구체적으로 독점자본에 의한 착취의 강화가 광범위한 계층의 저항을 유발하지만 독점자본 자체는 이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의 힘에 대한 독점자본의 의존을 그리하여 국가가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을 국가독점자본 성립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한다.

넷째 자본주의는 더 이상 보편적 경제체제가 아닐 뿐더러 세계사회주의체제는 그 정치적·경제적 우월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국가의 국제적 위상 변화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생성 요인임을 암시한다. 더군다나 제국주의의 역사적 전망이 밝지 않아서 독점자본은 사회주의와 경쟁할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장치와 결합하여 다국적독점조직(multistate monopoly organizations) 같은 연합세력(combined forces)에 의존하게 되는데, 구주공동체(EC)는 그 좋은 예로 지목된다. 다섯째 식민체제의 붕괴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식민제국의 붕괴가 식민주의의 잔재 유지와 그 새로운 형태-신식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 제국주의 세력과 정부의 결탁-예컨대 유라프리카 협정(Eurafrica agreement)-을 필수적으로 초래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섯째 국가간 독점조직도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불평등 발전을 고무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 세력이 국가를 이용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민족적 제국주의(national imperialism)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결국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시대의 새로운 산물도 초제국주의(super-imperialism) 현상도 아니며, 다만 현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외연이거나 새로운 특징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고도화된 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속성으로 파악되는 한, 그것 자체는 현대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만 존재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sup>35)</sup> 첫째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모순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체의 수단으로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자본주의체제에 새로운 힘을 투여해서 안정을 되찾으려 하면서도, 주로 착취의 강화와 모순의 증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강조된다. 셋째 국가독점주의의 발전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증대시킨 결과 중앙집중식 경제 운영 방식을 자초하여, 사실상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를 실현한 것임에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긴급히 대체해야 할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필연적 이행과 그 수단으로서 혁명을 요구하는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점은 레닌의 이론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에게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를 위한 완벽한 물질적 전제이자 입문으로 파악되고 있었다.<sup>36)</sup>

레닌의 이러한 관념을 수용한 소련의 이론가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생산의 사회적 성격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경제력 집중화 현상은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후 사회주의의 건설을 용이하게 한다고 귀결짓는다. 그런가 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재산과 자본주의경제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무산자 독재의 수법으로 억압·폭력 기구는 철폐되고 경제의 통제·규제 기

35) Jessop, *op.cit.*, pp.40-45 ; Volkov (ed.), *op.cit.*, pp.341-342

36) V. I. Lenin, "The Impending Catastrophe and How to Combat It," *Collected Works*, Vol. 25, p.359

구는 사회주의 건설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또한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과 규제 그리고 국가재산의 증대는 사유재산제 원리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며 그것과 생산력의 발전 요구가 양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sup>37)</sup> 더구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유재산제의 상충, 소수 독점자본의 생산수단 독점, 사회적 생산에서 획득되는 경제적 이익을 노동자 계급의 회생 위에 독점자본이 수취하는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하게 폭로함으로써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며, 이 결과 자본주의체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주관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시각은 혁명의 필연성을 예비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진보와 반동 그리고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력의 세계적 대립 구조 속에서, 좌취 계급의 지배로부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그리하여 前역사로부터 진정한 역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sup>38)</sup>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무산자의 혁명과 독재 없이는 사회주의로의 자동 이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무산자혁명의 여건이 자본주의권에서 오래 전부터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거나 존재하지조차 않는 국가에서는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변화하는 것에 그친다는 파악은<sup>39)</sup> 이 이론이 경험적 근거와 전면적으로 유리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에 내포된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독점자본주의하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의 증대를 역사적 경향으로 인정하되 국가의 독점자본에 대한 우월성은 인정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 위에서 보자면, 국가가 국제경제와 세계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국영기업의 활동을 수단으로 특정의 생산수단과 사회적 부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며, 예산과 가격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을 독점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를 통제하는가 하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국가가 통제할 정도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가는 주로 군사장비의 구입과 주문에 그리고 자본주의경제의 군사주의화에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독점자본을 지원하고, 독점자본의 해외 진출에 협력하며, 국제적 국가독점기구를 창설하고 제국주의적 병합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과 정부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할 정도로 국가 역할의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가<sup>40)</sup> 이 이론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재산을 보호할 뿐 경제는 그 관할 영역 밖으로 했던 야경국가와는 달리 현대 자본주의국가가 경제 활동까지를 그 역할로 포섭하고 있어도, 독점자본의 상위가 아닌 하위에 위치한다는 관념은 여전히 독점자본에 대한 국가의 예속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국가의 자율성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소련의 이론가들이 후퇴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독점자본의 지배를 위한 억압적 기구이며, 그 억압적 속성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증대 및 제국주의의 심화와 함께 강화된다고 파악하는 한.<sup>41)</sup> 이들은 레닌주의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가들이 냉전체제하에서의 양진영간 대립 구조를 가정한 가운데 분석의

37) Ryndina & Chernikov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m* (Moscow : Progress, 1974), p.191

38) Georgi Arbatov., *The War of Idea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Moscow : Progress, 1973), p.9

39) Andreyev et al.(eds.), *op.cit.*, p.420

40) Tumanov, *op.cit.*, pp.70-76

41) Jessop, *op.cit.*, p.58

촛점을 여타 사회주의이론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외적 모순-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의 투쟁-으로 옮긴 것도 중요한 이론적 변화로 지적된다.<sup>42)</sup> 그들에 의하면 양진영간의 대립 상황에서 과학기술혁명과 사회주의 진영의 성장이 자본주의 진영을 압박하여, 국민의 소비 수준 향상·완전고용 등을 위해 자본주의국가로 하여금 국가의 간섭과 지출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분석한다. 이로써 2차대전 이후 서구 및 미국이 불황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려니와, 자본주의국가의 간섭과 지출이 독점자본에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은, 특히 예산 지출이 군사 분야에 치중된다는 분석은 이 이론을 제국주의이론의 외연에 연결시킨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선진국 노동자들이 타락하고 부르조아화하는 반면, 군사비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지출 확대가 자본주의경제의 군사주의화를 촉진하는 변화야 말로 제국주의적 팽창의 강화 요인이라는 조망의 단서가 된다. 제국주의적 침탈의 주요 대상은 소위 후진국들 즉 제3세계여서 혁명의 전원지는 이들 지역이며, 그리하여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간의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이론의 귀결이다.

반제국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출함으로써 제3세계 반제혁명의 당위성을 합리화한 점에서는 바란(Baran)과 스위지(Sweezy)의 〈경제잉여의 유출〉<sup>43)</sup> 그리고 모택동의 〈농촌형 혁명 전략〉과도<sup>44)</sup> 유사하다. 모택동은 중국이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 단계-신민주주의혁명-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나 반식민지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었다.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신민주주의혁명은 세계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무산자 사회주의혁명의 일부라고 주장했었다. 바란과 스위지의 경우 경제성장에 투입되어야 할 경제잉여가 제국주의에 의하여 비생산 부문에서 과다하게 소비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마르크스 및 자본주의이론보다는 레닌과 제국주의이론에 더 의존한 것이라는 지적을<sup>45)</sup>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사회주의세계체제의 상승세에 직면한 가운데 독점자본의 지배를 유지하려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수긍하더라도, 독점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변화는 그 원천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설사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강조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독점자본 전체의 이해관계여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을, 자본의 논리가 아닌 독점자본이 경제외적 강제를 동원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sup>46)</sup>

이러한 소련식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구미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음에도 레닌주의적 해석을 여전히 영구화하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소련족 이론가들에게 의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 및 사회생활에 직접 개입하여 사회적 재생산 과정의 필수적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간섭을 가능케 한 국가와 독점자본간의 융합의 성격을

42) Dobb, *art.cit.*, pp.394-395

43) Baran & Sweezy, *op.cit.*: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57), pp.22-43

44) Mao Tse-tung, *Selected Works* (Peking : Foreign Language Press, 1966), pp.326-327

45) Jessop, *op.cit.*, p.71

46) Magaret Wirth, "Towards a Critique of State Monopoly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No.6(1977), pp.67-87.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소수의 독점자본이 국가를 통제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이 모호할 수 밖에 없거니와 자본주의체제의 독재적 속성에 대한 설명이 타당할 수 없다. 게다가 소련의 각종 사회과학이론이 정치적 편의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이론적 일관성이나 엄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관련하여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소수의 독점자본이 통제하는 독재장치라는 전통적 규정과 다르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본주의 진영은 퇴보·타락·정체의 상징만은 아니어서 그 속성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류 최고의 사상과 노동을 흡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저급 단계로부터 고급 단계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sup>47)</sup> 이론적 변화는, 결국 소련에서 정치의 변화가 이론의 변화에 선행함은 물론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다.

나아가서 생산 영역에서의 지속적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국가와 독점자본의 연합을 상정한 결과 독점자본에 대한 국가의 예속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을 자초하게 된다. 풀란차스 등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상호경쟁하는 과두독점자본과 국가가 결합한다면, 그리하여 독점자본의 지배자들이 국가기구의 주요 지위를 확보한다면, 국가는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에 관한 도구주의적 시각은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sup>48)</sup> 그러므로 서구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국가가 지배집단의 다양한 분파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이 분파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한다고 반박한다. 더구나 국가권력에 대한 과두독점자본의 지배를 수긍한다 하더라도 분석의 초점이 전체 사회경제체제로부터 소수 지배자들로 옮겨지는 방법론상의 오류도 내포하게 된다.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총체적인 비판은 Jessop으로부터 나오는데, 서술의 편향이 두드러지며, 명백하고 일관된 설명 원리가 부재하고, 혁명전략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필요에 종속되어, 경제결정론-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과 경제의 붕괴-과 정치적 주의(*political voluntarism*)-국가독점자본주의의 재생산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강제 조작, 이념적 의지에 의존-를 혼합한 것이라고 그는 단정한다.<sup>49)</sup>

#### 4. 한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수용

사회주의 이념이나 정치경제학의 자유로운 수용을 저지해 왔던 상황을 점진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1980년대 초 한국 지성에 의한 종속이론의 수용과 비판이었다. 1980년대 초는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 반공주의에 대한 의문, 기존 사회과학이론의 구미총심적 시각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어 방법론상의 반성이 일어난 시기여서,<sup>50)</sup> 한국적 적실

47) Yuri A. Krasin, *Restructuring and Problems of the Theory of Socialism*(Moscow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1989), pp.23-26.

48) Nicos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London : New Left Books, 1975), pp.158-159 ; Ralph Miliband, *Marxism and Politics*(Oxford : Oxford Univ. Press, 1977), p.68.

49) Jessop, *op.cit.*, p.63.

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각종 이론을 수용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종속이론은 지성계의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수용된 것임은 물론 그것의 활성화를 자극한 것으로서, 그 이론의 기저에 깔린 마르크스주의적-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발했었다.<sup>51)</sup> 즉, 정치적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세력이 형해화된 자유민주주의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한 것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종속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 제반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의 재조명 작업이 동반된 것이,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나 이론의 광범위한 수용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의 재정립 과정에서 각종 사회주의이론이 전면적으로 급속히 수용된 것은 아니었고, 비슷한 시기에 대두된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종속이론의 아류인 주변부자본주의론을 극복해야 했다.<sup>52)</sup>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이론의 수용은 한국사회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및 주변부자본주의론에 대한 이론적 우월성의 입증을 그 전제로 요구받고 있었는데, 이 결과 사회주의의 국가이론을 대변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이 두 이론과의 논쟁에 휘말린 것은 당연한 추이였다. 논쟁 과정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경우, 첫째 식민지성과 반봉건성 간의 논리적 연계가 약하고, 둘째 한국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반제가 반미제만을 의미할 뿐 반일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비역사적 규정이며, 셋째 봉건적 지주제와 소작제의 존속을 현재 한국의 주요 모순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경제의 변화를 무시한 일종의 정체성 사관이라 할 수 있으며, 넷째 민족자본과 중소기업 그리고 매판자본과 대자본을 동일시한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에 노출된다.<sup>53)</sup>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접맥된 주변부자본주의론의 경우도,<sup>54)</sup> 중심-주변 관계의 특수 국면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을 부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체론으로 전환하여 주변부 제국의 자립 가능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경제결정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회피할 수 없었다.<sup>55)</sup> 그리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비롯한 사회주의이론들은, 그 수용 기반을 조성해 주었던 종속이

50) 예를 들면 장시원 편역, 「식민지반봉건사회론」(한울, 1984), pp.9-10.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 근대 사회가 식민지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사회를 파악하는 연구방법론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이유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서양경제사이론에 의존해 온 것을 들고, 식민지사회의 연구를 위해서는 그 자체의 내재적 발전의 법칙을 제국주의와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식민지사회를 변혁하여 민족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변혁주체를 찾아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51)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는 김호진,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월간조선」3(1983) : 서관모, 「종속이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오늘의 책」2(1984 여름) : 염홍철,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현대사회」(1983 겨울) : 조퇴경, 「종속학파의 배경과 이론들」, 「정경문화」(1981.3)

52) 박현재,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1)」「창작과 비평」57(1985), p.314.

53) 박현재, 앞의 논문, pp.339-343 : 허데키, 「변혁의 사상과 사상의 변혁」, 「사상문예운동」2(1989 가을), pp.80-89.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광범위하게 다룬 것으로는 장시원, 「앞의 책」 참조. 그런데 운동권의 식민지반봉건사회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일제 시대 조선사회연구로서의 식민지반봉건사회론 그리고 戰前 중국사회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일본의 〈講座派〉나 〈오쓰카(大★久雄) 사학〉의 반봉건적 토지소유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독자적 이론임을 강조한다. 이에 관해서는 정민,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규정-식민지반봉건성 규정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죽산, 1989).

54) 윤소영,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 「현실과 과학」2(1988). 윤소영은 종속이론이 식민지반봉건사회론으로 변신한 것은 이론적 기회주의의 모범이라고 비판한다.

55) 김윤자, 「제3세계 사회과학의 전망」, 「오늘의 책」6(1985.6)

론까지도 극복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었는데, 주변부자본주의론의 시각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비판한 이대근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시각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 및 주변부자본주의론을 비판한 박현채간의 논쟁은<sup>56)</sup> 소위 〈한국사회 성격 논쟁〉의 출발점이 된다.<sup>57)</sup>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에 관한 지성계의 관심을 증폭시켜, 그 이론의 수용을 촉진하고 잇달아 유발된 논쟁을 통하여 이론 상호간의 차이를 명백히 해 준 의의도 지니는 것이었다.

이 논쟁에서 드러난 박현채의 기본 관점은 내적 또는 기본 모순이 1차적 모순이며 외적 모순은 2차적 모순이라는 것이었는데,<sup>58)</sup> 이러한 인식은 그가 제시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구분 기준-자본의 운동 양식,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와의 관계-과<sup>59)</sup>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와의 관계라는 외적 요인은 자본의 운동 양식이라는 내적 요인에 대하여 부차적 중요성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그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중의 하나-외자의 광범한 진출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화(1961-1972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서, 분석 비중을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외적 모순으로 이동시킨 가운데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 특수한 속성중의 하나라는 소련식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과<sup>60)</sup> 그의 해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가 소련식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그대로 또는 그 고유의 민족경제론의 토대 위에서 수용함으로써 전자에 의해서 후자가 심하게 굴절된 결과일 것이려니와,<sup>61)</sup> 이 점은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수용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이 논쟁 이후 학계와 운동권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은 주변부자본주의이론에 대하여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면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형태로 자리잡는다. 특히 운동권중 이른바 제헌의회과-CA과-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선화한 것이 그 결정적 계기였는데, 그들의 강령을 명백히 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이하 [성격과 임무])는 신식 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최초로 체계화한 문서로 해석된다.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란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자, 독점자본이 국가와 유착하고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현대사회의 모든 생활영역, 특히 재생산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는 것을 특징지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sup>62)</sup> 규정하여, 소련식 개념과 별로 다를 바 없음을 환기시켜 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성격이 한국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도 그대로 관철된다고 함으로써 소련식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용인하지만, 동시에 신식민지라는 특수성을 부가함으로써 그

56) 박현채, 「앞의 논문」; 이대근,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관하여, 『창작과 비평』57(1985)

57) 조희연,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 논쟁,”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죽산, 1989); 여현덕, “사회이행과 민주주의론,” 김청석 외, 『80년대 한국사회』(공동체, 1986)

58) 박현채, 「앞의 논문」, pp.311-312.

59) 박현채, “한국자본주의 전개의 제단계와 그 구조적 특징,” 변형윤 외, 『한국사회의 재인식』I(한울, 1985), p.24.

60) Volkov(ed.), *op.cit.*, p.24.

61) 윤소영은 박현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민족경제론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파악한다. 윤소영, “80년대 한국 경제학의 연구 동향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죽산, 1989).

62)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이하 「성격과 임무」) 편집부 역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I(벼리, 1988).

것의 보편적 적용을 스스로 제약한다. 즉, 한국의 독점자본은 신식민지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구조적 촉약성을 내포하며, 이것이 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탁이 필연화된다는 설명이다.<sup>63)</sup> 이미 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련의 이론가들도, 신식민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과 국가의 결탁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서,<sup>64)</sup> 이러한 해석은 소련식 이론의 영향을 수용한 결과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여전 속에서 결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독점자본과 국가의 성격이 예속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 종속이론 특히 주변부자본주의론으로부터의 영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용했음을,<sup>65)</sup>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이른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제설통합주의적 성격의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그러한 해석은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예속성을 암시하되 명백한 규정을 두지는 않은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의 특수한 속성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예속성을 병치하지 않은 소련의 이론을 한국의 국내외 환경에 비추어 변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련의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념이나 이론이 출처를 떠나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전파자의 정치환경-객관적 여전-과 그의 의도 또는 목적-주관적 여전-에 따라 굴절될 수 있는 것임을, 그리하여 본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임을,<sup>66)</sup> 한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수용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은 5.16 이래 자본주의의 성격이 신식민지독점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파악하면서<sup>67)</sup> 신식민지국가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끊임없이 고도화되어 가지만 그 자본주의의 발전이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것이라면 (자본)축적의 발전은 예속-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의 심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신식민지국가의 독점자본은 낮은 생산력으로 인하여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재생산 과정에 예속되어 축적에 위협을 받는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한다.<sup>68)</sup>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축적의 위기를 생산력의 제고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국내외 타계급에 대한 초과 착취로 이 부분을 보충한다”는<sup>69)</sup> 설명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권력과 자본이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즉 사실상 자율성이 없는 상태라면, 제국주의자본의 직접 지배를 배제한 상태에서 타계급에 대한 초과 착취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반박이<sup>70)</sup>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논자들이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자본축

63) 「성격과 임무」, pp.50-51.

64) Andreyev, et al(eds.), *op.cit.*, p.401.

65) 히데키는 종속의 심화와 함께 탈종속적 발전의 가능성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고 비판한다. 히데키, 「앞의 논문」, pp.97-98. 이재희는 실증연구를 통해 1970년대까지와는 달리 1980년대 초부터는 한국자본의 종속성이 약화되었음을 입증한다. 이재희, 「한국 독점자본의 형성에 관한 연구-제조업 99 대기업을 중심으로」(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2). 자본축적의 발전=예속의 심화 논리에 대한 이재희류의 비판을 부분적 파악이라고 반박한 것으로는 양원태, 「앞의 논문」, pp.242-255 참조.

66)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外來思想の受容の問題,” 武田清子編, 「思想史の方法と対象」(創文社, 1961), 201-208.

67) 「성격과 임무」, pp.47-48 : 이병천, “전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기초 과정,” 「지역사회와 민족운동」(한길사, 1987), p.26-33 : 박현채, 앞의 논문, 「앞의 책」, p.24.

68) 「성격과 임무」, p.28,67 : 윤소영, “8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연구 동향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론논쟁」 I (죽산, 1989), p.618. 그런데 이병천은 축적의 발전은 예속의 심화라는 논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충진자본주의론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병천, 「앞의 논문」 참조.

69) 「성격과 임무」, p.67.

적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도 비중을 부여한다는 증거여서 소련의 그것에 비해 이론의 진전을 거둔 것이지만, 국가권력과 독점자본의 예속성 심화를 강조하는 논리는 소련파의 상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주요 분석 대상이 선진국인 관계로 양자의 결탁은 강조할 수 있을지언정 예속성의 심화는 운위할 소지가 거의 없고, 단 실천적 요구-혁명-의 대상을 후진국으로 삼고 있을 뿐인데도(3장 참조), 한국의 경우 이를 목적론적으로 수용하여 후진국의 예속성을 재확인하려 한 결과 그러한 상위가 빛어졌다고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의 권위주의화 경향에 수반된 국가권력의 확대와 독점자본의 활동 강화 경향을 설명해 줄 틀로서 종속이론을 원용하고 그 기반 위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을 수용한 것이 그러한 상위를 증폭시켰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명하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이론을 후진국에 적용한 상위는 다른 한편으로 소련식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이 다분히 무비판적인 방식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려니와, 이 점은 노동의 사회화에 관한 검토를 경시한 그간의 연구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노동의 사회화는 동일한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집중에 의존한다는 레닌의 논리를 답습한 결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 증대를 강조할 뿐인 소련의 분석시각은.<sup>70)</sup> 한국의 논자들이 그 이론적 근거를 소련의 그것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간파한 한 논자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타당성을 수긍하면서도, 국가의 간접 양식을 자본가 계급과의 관계에서만 파악하는 종래의 관점을 탈피하여, 노동자 계급의 투쟁 계급으로의 전환 과정과 관계지워 파악할 필요를 역설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만연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다.<sup>71)</sup> 더욱기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독점자본 및 국가권력의 예속성과 대비되는 민족자본가의 존재 양식과 그 규정 방식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독점중소자본가인 자유주의적 부르조아중에서 예속독점자본과 하청 관계가 없는 자본이 〈민족자본가〉라고 도식적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드러낸다.<sup>72)</sup> 이로써 독점자본의 수탈 대상이어서 반독점 세력일 수도 있는 하청중소자본을 민족자본가 범주에서 배제한 것은, 소련의 일방적 영향을 여과없이 수용함으로써 독자적 이론의 정립에 실패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70) 히데키, 「앞의 논문」, p.98.

71) V. I. Lenin, "What the Friends of the People are and How They Fight the Social Democrats," *Collected Works*, Vol. 1, pp.175-176 : Andreyev et al. (eds.), *op.cit.*, pp.395-396. 이 점에서 한국의 관련 논자들이 대부분 레닌 단계의 마르크스주의나 코민테른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영섭의 주장은 소련의 논자들이 여전히 레닌의 영향아래 놓여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검토를 요한다. 지영섭,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 논쟁에 부쳐,"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의 논쟁」 I (벼리, 1988) 참조.

72) 이병천, 「앞의 논문」, p.10.

73) 이같은 민족자본가 개념에 대한 비판은 이진경, "민주주의혁명과 민족자본가 계급," 이진경, 임지혁 외, 「민족자본가 논쟁」(벼리, 1988) 참조.

## 5. 결 론

이념이나 이론이 본래 그것을 생산한 세력의 의도와 상호작용하는 정치환경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일단 전파 과정에 들어서면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세력의 의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용된다는 사실은<sup>74)</sup> 한국 지성의 사회주의이념 수용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제 시대의 경우 사회주의이념의 수용이 독립투쟁이라는 실천적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주의이념과 그 분파중 일부만-특히 소련식 사회주의이념-이 수용되고 강조되는 웨곡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없었던 한계를 안게 된다. 이러한 수용 양태는 해방 직후의 시기에도 영향을 미쳐, 그것의 수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결여하게 하는가 하면 지성계의 민족국가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빚어 낸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후로는 반공주의의 강화로 말미암아, 소련은 물론 서구적인 사회주의이념의 자유로운 수용과 연구가 극도로 제약된 결과, 한국에 관한 한 실존하지 않는 이념을 배척하는, 즉 <부재 이념>을 비판하는 역리가 지속된다. 일제 시대 이후 1970년대까지 이어진 이와 같은 수용의 병폐 내지 한계는 국내외 정치환경의 개선을 배경으로 1980년대로부터 극복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갈래의 사회주의이념을 수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제분파간의 차이-특히 소련과 서구마르크스주의간의-는 물론 사회주의와 그 반대이념간의 차이까지도 준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식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정 외국이념을 배척하기 위하여 또 다른 특정 외국이념에 의존하는 일종의 교조주의적 수용의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이념의 한국적 적실성을 검증하려는 실증적 분석이 부진했던 결과, 한국의 정치환경에 의하여 여과된 그리하여 독자성을 갖는 이론을 정립할 수 없게 된 한계도, 한국 지성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론 수용이 남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여겨진다.

---

74) Earl H. Kinmonth, "Nakamura Keiu and Samuel Smiles : A Victorian Confucian and Confucian Victoria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85, No.3(June 1980), p. 555.